테마칼럼 | 문학과 사회

지도를 찾아서

최 영 미

“노선번호와 운행시간, 기점과 경유지 그리고 종점의 이름만 화살표로 표시했지, 정작 시내지도가 인쇄된 면이 없었다.
그처럼 황당한 물건을 만든 인간의 머릿속이 궁금했고, 한방 맞은 기분이었다.”

춘천으로 이사한 다음날부터 시내지도를 구하러 사방으로 돌아다녔다. 새로운 곳에 도착해 어리둥절하다가도 동서남북이 표시된 단단한 종이가 내 손에 쥐어지면 마음이 놓이는 건, 여행으로 잔뼈가 굳은 방랑자의 오랜 습관이며 생존본능이리라. 지도를 펼쳐들고 나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을 것이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해. 잠을 자기 위해, 밥을 먹기 위해, 물건을 사기 위해, 서울로 가는 차를 타려면 어디가 좋은지…. 그러다 웬만큼 익숙해지면 묻기를 중단하겠지. 모두에게 ‘좋은’ 곳은 없다. 그들에게 괜찮은 식당이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거니와, 내 눈으로 우연히 괜찮은 곳을 발견하는 재미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시외버스터미널의 관광안내소에서 얻은 지도에는 호텔과 골프 코스, 먹거리와 볼거리만 풍성했지 동네 이름도 도로의 명칭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 시내 지리가 상세히 나온 지도를 사려 서점에 갔지만, 하나뿐인 물건은 이미 품절이었다. 다른 서점에 문의해도 없다는 똑같은 답을 듣고서야 나는 알았다. 춘천지도를 얻으려면 서울에 가야 한다. 내가 누운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려면 기차를 타고 청량리역에 내려 다시 전철로 갈아타고 교보문고까지 원정가는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석사동사무소에 비치된 시내버스 안내책자를 넘기다 나는 또 경악했다. 노선번호와 운행시간, 기점과 경유지 그리고 종점의 이름만 화살표로 표시했지, 정작 시내지도가 인쇄된 면이 없었다. 나처럼 이곳 지리에 어두운 사람에겐 있으나마나 한 안내책자이다. 아는 사람만 보고 타라는 식인데, 춘천시에서 발행한 버스노선도처럼 불친절한 안내서를 나는 보지 못했다. 한 페이지도 아니고 63쪽이나 되는데 지도를 넣지 않다니. 그처럼 황당한 물건을 만든 인간의 머릿속이 궁금했고, 한방 맞은 기분이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방도시에서 어떻게 살려고? 외롭지 않겠어? 나의 서울 탈출 소식을 들은 지인들이 놀라서 내게 물었을 때 나는 내심 그들의 염려가 지나치다고 생각했었다. 우리 부모님 말마따나 나는 ‘어디 떨어뜨려 놔도 살’ 성격을 타고났고, 외로운 사람은 어디에서 건 외로운 법이다.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경기도 고양시에 살면서도 지난 십여년간 나는 서울을 자주 출입하지 않았다. 밤늦게 택시 타기가 싫어 술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다. 자정이 넘어 귀가한 날이 일년에 글쎄, 한번 꼴이나 될라나? 술자리를 피하다 보니 문단 사교계와 멀어졌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옛말이 맞다.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엔 앉은 자리에서 밥 숟가락 뜰 새 없이 울려대던 전화벨이 뜸해지고, 어느덧 나는 잊혀진 작가가 되었다. 성가시게 매달리던 인터뷰 의뢰나 원고 청탁도 한두번 거절하다보니 나중엔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 까다로운 시인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그래도 거절하는 ‘맛’이 있던 옛날이 좋았던가.

어차피 서울에, 중심에 목숨을 걸지 않은 인생이니 강원도든 어디에서든 살지 못하랴. 아직 내 몸이 멀쩡하고 직장에 매이지 않았으니 뭐가 문제란 말인가? 내 소유의 똥차도 없지만, 가까운 곳은 걸어가고 먼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내 계산이 틀렸다.

지방은 교통이 불편하다. 버스가 수도권처럼 자주 다니지 않고 노선도 다양하지 않아 급하면 택시를 타야 한다. 그래서 춘천 안에서 움직이기가 때로 서울 가기보다 어렵고 비용도 더 든다. 택시비를 아끼려 추운 겨울에 버스정류장에서 이십분씩 서서 떨며 가끔 ‘내가 왜 여기 왔나?’ 자문하기도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서울 근처에서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아름다운 자연을 날마다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고 행복하므로. 〈시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 병 희

병원내 벨소리 진료단절 부른다

오늘도 환자를 보던 중에 핸드폰 진동이 울린다. 전화를 받아야하나? 일순간 망설임이 일지만 담당 환자의 보호자인 일권엄마의 전화다. “원장님 일권이 수술 잘 됐고요, 이틀 뒤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 발파린(항응고제)을 먹어야하니 그쪽 병원에서 PT, APTT(출혈검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봐 달라시네요. 심초음파 녹화나 다른 서류 챙겨서 갈까요?”

“네 검사는 가능합니다. 수술 잘 돼서 다행이네요. 서류는 가져 오시면 좋고요. 내려와서 뵙죠”

일권이는 폐동맥폐쇄로 태어나자마자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내려와서도 자주 아프다보니 우리 병원의 단골손님이 됐는데, 두 주 전에 2차 수술을 받기 위해 다시 상경했다.

첫 수술 전에 열이 나고 간기능 수치가 높아져 도중에 치료를 받고 다시 올라갔기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환자였다. ‘진료 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항상 고민하는 문제다.

의사들은 병동에서 갑작스럽게 환자가 경련이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 응급상황을 알리는 콜(전화)에 대응을 해야한다. 이런 콜의 대부분은 분·초를 다투는 상황들이다. 아이가 담뱃재나 술, 동전, 샴푸 등 이물을 먹었을 때처럼 간호사 등 병원직원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전화도 있다. 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나 약국 등에서 오는 문의전화는 의사가 적절한 답을 해줘야한다.

문의전화의 대부분은 급박한 경우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위세척, 위·기관지 내시경으로 이물을 제거도 해야하는 상황도 생긴다. 나 또한 대학병원이나 타병원에 검사나 수술을 의뢰하면서 진료 중에 해야하는 전화도 있고, 타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결과를 알려 주거나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거기에다 각종 모임과 단체 등의 일을 맡으면서 선·후배와 동료, 동문, 유관기관이나 단체, 모임 등에서 오는 전화와 여러 문자메시지들. 이런 통신의 홍수 속에서 진료의 흐름이 깨지기도 한다. 실제로 환자 한 명을 보면서 전화를 수 차례 받느라 민망한 경우도 있었다.

환자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즐거운 전화가 있는 반면 엉뚱하거나 불쾌한 전화를 받아서 마음이 언짢아지는 전화도 있다. 이럴 땐 의사도 사람인지라 환자를 보는데 좋지 않은 영향도 미칠 수 있다.

병원을 찾는 환자나 보호자들의 휴대전화 매너는 어떤가. ‘병원에서는 원활한 진료를 위해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하여 주십시오’라는 안내문구가 무색하게 진료 현장에서는 어김없이 휴대폰 벨소리가 들려온다. 이런 벨소리들이 소음공해로 낙인찍힌 것은 오래된 일이다. 청진기를 대고 아이를 진료를 하거나 문진을 할 때도 집중력이 필요하다. 의사와 환자간의 의사소통도 매우 중요하지만 벨소리가 진료의 단절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겁을 먹고 울어대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끊임없이 울려 대는 휴대전화 벨소리. 언제쯤 우리의 진료실은 평온을 찾아올까? 〈미래아동병원 원장〉

기 고

김 사 빈

‘세배’ 제대로 합시다

설날은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첫 날이다. 이 때 하는 새해의 첫 인사가 바로 ‘세배’다. 일 년에 한 번 하는 ‘세배’를 제대로 알고 하면 어떨까? 세배의 바른 예절을 실천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사례를 흔히 본다. 이를 바로 알고 실천한다면 새해 첫 출발이 보다 문명화되고 뿌듯해질 것이다.

세배할 때는 절하는 것 자체가 인사이기 때문에 어른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와 같은 말을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공손히 절만 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절을 하기 전이나, 절을 하면서, 절을 하고 나서 바로 어른께 이런 인사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례이다. 조용히 절만 해야 한다. 이는 비록 아랫사람이라도 그를 존중하는 대접의 표시로 하는 것이다. 답배는 아랫사람이 절을 시작해 무릎을 꿇는 것을 본 다음에 시작해서 아랫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끝낸다.

덕담은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기원과 격려의 인사말이다. “새해 복 많이 받게”, “소원 성취하게”가 가장 일반적이다. 덕담을 들을 때는 남자는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손을 모아 허벅지 중앙에, 여자는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두 손을 모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얹고 정중하게 듣는다.

이렇게 어른의 덕담이 있은 뒤에 인사를 한다. 이 때 특별히 “만수무강하십시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와 같이 건강과 관련된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본 뜻과 달리 상대방에게 ‘내가 그렇게 늙었나?’하는 서글픔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등산 많이 하세요”, “올해에도 복지관에서 즐겁게 지내세요”와 같이 기원이나 용기, 즐거운 연상을 담은 인사말이 좋다.

새해 인사로 가장 알맞은 것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이다. 상대에 따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등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은 집안, 이웃, 학교 등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보편적 인사말이다.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께는 편지나 연하장, 이메일, 전화 등으로라도 새해 인사를 드리고 나누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따뜻한 인간미를 나누는 훈훈한 사회로 전진하는 계기가 되고 원만한 인간 관계 형성에 크게 보탬이 되리라 생각된다. 〈고흥중학교 교장〉

(이하 본문 연결: 고 나서 어른의 덕담을 기다려야 한다.)

누워 있는 어른에게는 절대 절하지 않으며, 절은 받을 어른이 ‘절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도 된다. 어른에게 “절 받으세요”, “앉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른에게 수고를 시키거나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의가 아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어른이 자리에 앉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라 하고 공손히 절을 하는 것이 옳다.

조부모, 부모, 친척 어른께는 큰절을 올리며 선생님, 연장자, 형님, 누님 또는 같은 또래와의 인사는 평절로 맞절하는 것이 무난하지만 맞절을 할 경우 아랫사람이 아랫자리에서 먼저 시작해 늦게 일어나고 웃어른이 윗자리에서 늦게 시작해 먼저 일어난다. 어느 형태의 세배든 정중하게 격식을 갖춰 예를 다하여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자나 친구의 자녀, 자녀의 친구, 연하자라도 상대가 성년이면 반드시 답배

택시 불법 지입제·사납금 횡포 강력 단속을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신다. 택시기사들의 노동환경이 너무나 열악해 안타깝다.

10년 사이 택시 기사들의 노동 강도는 최악으로 떨어졌는데 노동의 대가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다. 택시 기사들의 임금은 비정규직 평균 임금의 70% 선도 안 되니 죽도록 일해도 생활이 될 리 만무하다.

일부 택시회사들은 아예 고정급을 없애고 한 달에 일정액의 사납금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임금으로 가져가는 도급이나, 영업허가를 받은 회사택시를 아예 개인에게 불하해 영업을 하게 하고 월 사납금만 받는 지입제 등의 불법 경영을 한다.

이러다 보니 택시들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난폭운전을 불사하며 승객의 생명을 담보로 내달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탓하겠는가.

하루속히 일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해 이를 행하는 사업장에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이 제도가 도입 되어야 사납금의 횡포가 줄어들고 택시기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법에 따라 불법경영 사업주의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한다.

▲유진규·광주시 광산구 두정동

어린이 안전 위협하는 음료수 뚜껑 제작 신경 썼으면

슈퍼마켓에 가서 아이들에게 음료수를 사주다 보면 뚜껑이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수많은 장식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장식에 그치지 않고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젖병처럼 빨아 먹을 수 있게 만든 어린이용 음료수 뚜껑이 있다. 여기에는 캐릭터 완구가 붙어있고 알록달록한 장식도 돼 있다. 그런데 얼마전 우리 큰 애가 이 음료수를 먹다가 아랫입술이 뚜껑과 몸체 주둥이 사이에 물리면서 입술이 찢어져 병원에서 꿰매기까지 했다.

용기 뚜껑은 지름이 2.1cm에 불과하다. 말랑말랑한 겉뚜껑도 있는데 보드라운 감촉탓에 어린이들이 무심코 물어뜯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자칫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질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하다.

어린이 음료수 용기에는 ‘깨져서 상처를 입힐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문구가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뚜껑에는 위험성을 경고한 문구가 거의 없다. 음료수 뚜껑까지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제작이 필요하다.

▲신은영·광주시 남구 양과동

사 설

정권교체기 광주·전남 ‘홀대’ 현실화되나

정권교체기를 맞아 광주·전남 현안사업이 왜곡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시·도지사와 정치권, 사회단체 등은 최근 로스쿨 선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 폐지 방침에 반발, 잇달아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사회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위기의식은 심각하다. 우선 로스쿨에서 조선대가 탈락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인구 30만의 제주에 1곳, 170만의 전북에 2곳을 배정하면서 320만의 광주·전남에 1곳만 선정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로스쿨 탈락은 지역 인재의 유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폐지 방침도 마찬가지다. 문화중심도시 건설은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착공한 대표적 국책사업이다. 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조성위를 폐지하는 것은 시작단계에 불과한 문화수도의 싹을 자르는 행위다.

또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와 무안 기업도시는 표류하고 있고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나주에 건설 중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면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현상들을 의도적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광주·전남 현안사업들이 왜곡·축소되는 사태가 잇따르면 지역사회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호남은 과거 수십년간 소외를 받아온 쓰라린 과거를 안고 있다.

지역사회도 각성해야 한다. 정치권을 비롯 지역사회 전반이 그동안 지역현안에 대해 관심이 적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정치인과 광주시, 전남도 등은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수위를 설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어 공교육 강화 여건 확충이 관건이다

이명박 새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의 핵심은 정부가 영어전문교사를 대거 채용하고 영어수업 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2012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영어 수요를 공교육으로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영어 공교육 강화는 시대적 요청이다. 중·고·대학에서 10년간 영어를 공부하고도 제대로 대화조차 못하는 현행 영어교육체계는 개선되는 게 마땅하다. 영어 사교육비가 연간 15조원에 달하고 해마다 3만명 이상이 해외유학을 떠나는 현실에서 영어 공교육 강화는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문제는 현실적 여건이다. 아무리 취지가 옳다 하더라도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2만3천명의 영어전담교사를 선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영어 회화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을 매년 4천명씩 선발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영어회화를 구사하는 능력과 교육을 제대로 하는 능력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재정문제 역시 쉽지 않다. 5년간 4조원의 재정을 영어 공교육에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경제 여건에서 과연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영어 공교육 방안이 일선 학교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들의 영어 학력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 실효를 거둘지 우려하고 있다. 수업이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오히려 사교육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영어 공교육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서둘러선 안 된다. 유능한 교사 및 재원 확보,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어 수업의 여건부터 충족시키는 게 순서일 것이다.

無 等 鼓

핸드볼

최근 남녀 핸드볼 국가대표팀의 잇따른 승전보에 많은 국민이 열광했다. 베이징 올림픽 예선에서 심판 편파판정으로 분루를 삼켰던 핸드볼 남녀 국가대표팀은 지난달 29~30일 일본과의 재경기에서 모두 이겨 다시 금메달에 도전하게 됐다.

특히 지난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분전한 여자 대표팀 ‘아줌마’들의 감동 스토리를 소재로 한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과 함께 남녀 한·일전은 핸드볼 신드롬까지 몰고 왔다.

핸드볼은 고대 그리스에서 행해졌던 ‘하르파스탄’과 로마의 ‘하르파스툼’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당시 핸드볼은 가죽주머니에 깃털을 가득 채운 공을 서로 빼앗아서 정해진 장소에 던져 넣는 경기였다. 근대 핸드볼은 독일에서 1915년 무렵부터 여자의 구기로 시작한 ‘토어발’에서 연유한다.

우리나라에는 1922년께에 11인제 경기로 처음 소개됐다. 1970년대까지 핸드볼은 일본식 이름인 송구(送球)로 우리에게 익숙했다. 학교 체육시간에서나 친구끼리 편을 갈라 핸드볼 공을 만져본 이도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 여자대표팀은 1988년의 서울올림픽과 1992년 바로셀로나올림픽에서 연속 금메달을 따냈다. 남자는 이번 승리로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 3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

이 같은 성적에도 핸드볼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지 오래다. 고된 훈련과 과격한 몸싸움을 필요로 하는 핸드볼은 선수 구하기도 어렵다. 실업팀들은 프로스포츠에 밀려 속속 해체돼 몇 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 출신 선수들은 하는 수 없이 일본이나 유럽으로 건너가 운동을 계속해야 했다.

태극 남매의 한·일전 동반 승리로 핸드볼 인기가 상한가다. 그러나 ‘반짝 인기’에 호들갑 떨다가 정작 관심과 지원을 외면한다면 4년 후 ‘우생순’ 속편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박치경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